[고려대학교 문항정보]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1~2번	
출제 범위	고등학교 과목명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경제, 수학
	핵심개념 및 용어	민주정치, 여론, 공동체, 조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문항 및 제시문

①

여론이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정치적 쟁점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런 쟁점들에 대해 개개인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지만 하나의 쟁점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비슷한 견해를 갖기도 하는데, 이런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한다.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라는 점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면, 정부는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정부와 정책 결정자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무시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여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을 파악하는 것인데, 오늘날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과학적 기법이 잘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의 유동성도 여론 정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그들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사건의 영향에 따라서 항상 변한다. 예를 들어 대북 원조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우세하다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무기 개발 등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변한다.

특정 쟁점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어느 쪽 의견을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강제하면 다른 쪽의 반발을 살 것이고, 이는 사회 갈등을 일으켜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 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화와 설득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직업 정치인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의 대변자, 또는 그 나름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의 의견을 주도하고 조절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충동, 사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대중의 의지를 만들기까지 한다. 우리가 정치 과정의 분석에서 직면하는 것은 대체로 진정한 다수의 일반 의지가 아니라 그처럼 만들어진 의지이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국민의 의지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지 정치를 추진하는 힘이 되기 어렵다.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의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상업 광고의 방법에 정확히 대응된다. 양자는 동일하게 대중의 잠재의식에 접근하려 한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연상을 조성하는 기법이 동원되며 연상은 덜 합리적일수록 더 효과를 발휘한다. 애매한 비유와 생략적 화법, 반복적 강조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결정이 유도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비판을 일깨우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광고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광고의 기법들은 사적인 생활의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더 크게 활용된다. 그러나 최고와 최선을 약속하는 그 어떤 광고도 장기적으로는 상품의 질적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정치적 결정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치적 결정이 지닌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식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성 의류의 효능은 실험실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을 그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실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

이성에 호소한다고 공언하는 정치 광고는 상업 광고의 술책들을 활용함으로써 타락한다. 사실과 논증으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반이성적인 호소들에 대중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편견 없는 정보와 논리적으로 정확한 추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대중은 그들의 선입관과 연결될 경우에만 정치적인 정보와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하지만 대중의 선입관조차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현실 정치의 논의에 불가피하게 개입한다.

③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의 삶은 사회성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교 사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누구의 부모나 자식, 혹은 친구와 이웃이라는 관계 맺음을 통해 파악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출생과 더불어 자리매김하는 ‘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성장하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도 ‘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이처럼 유교 사상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 윤리’를 강조한다. 두 사람 사이의 합당한 관

계를 의미하는 인(仁)을 포함하여, 유교 윤리의 중요 덕목 대부분은 관계 윤리를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오륜(五倫)이 바로 이런 관계 윤리를 잘 보여준다. 오륜은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두 주체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제시한 것이고, 상호 간에 지켜야 할 태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륜의 관계 윤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측면이 있다.

유교에서는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자가 강조한 인의 실천 방법으로서 "사욕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를 회복함[克己復禮]"이나 유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미룬다[先公後私]."라는 말이 유교의 이런 정신을 잘 보여 준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번영이나 타인과의 합당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유교가 공동선을 중시하고, 절제와 겸양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한 것도 바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는 개인의 덕목 함양과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④

한 마을에 총 11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각 0부터 10 사이의 소득을 1씩 다른 크기로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다. i번째 주민의 소득을 w_i로 표기하자. 그러면 첫 번째 주민의 소득은 $w_1 = 0$, 두 번째 주민의 소득은 $w_2 = 1$, 그리고 11번째 주민의 소득은 $w_{11} = 10$이다.

(가) 마을 자치회는 소득세를 걷는데, 소득이 w_i인 주민이 t의 세율에서 얻게 되는 만족도는 $f_i(t) = (1-t)w_i - 0.2(tm-m)^2 + 10$이다. 단, m은 마을 주민 전체의 평균 소득이며, t는 0과 1 사이의 실수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각 주민은 자신의 만족도를 더 크게 하는 세율을 선호한다. 마을 자치회는 과반수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세율을 채택한다.

(나) 소득세율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론 조사를 매월 한 번 실시한다. 여론 조사에 응답할 때 i번째 주민은 직접적인 만족도인 $f_i(t)$뿐만 아니라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 그 세율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임의의 두 세율 t_1과 t_2에 대해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 t_1을 t_2보다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x라면, 이번 달에 i번째 주민이 t_1을 선호한다고 답할 때 얻는 총 만족도는 $f_i(t_1) + 2x$이고, t_2를 선호한다고 답할 때 얻는 총 만족도는 $f_i(t_2) + 2(1-x)$이다. 주민은 여론 조사에서 자신의 총 만족도를 더 크게 하는 세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다. 단, 첫째 달의 x값은 임의로 주어진다.

1. ①, ②, ③을 활용하여, ‘공동체와 여론 형성’에 관해 논술하시오.

2. ④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1) (가)의 상황에서 소득이 2인 주민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세율을 구하시오.

2) (가)의 상황에서 두 가지 세율, $t_1 = 0.6$과 $t_2 = 0.3$이 제안되었다고 하자. 어떤 소득 구간에 속한 주민이 $t_1 = 0.6$을 $t_2 = 0.3$보다 선호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마을 자치회가 과반수의 여론에 따라 두 가지 세율 중 하나를 결정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지 설명하시오.

3) (나)의 상황에서 $t_1 = 0.8$, $t_2 = 0.3$이고 첫째 달의 여론 조사에서 t_1을 t_2보다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x = 7/11$이었다고 하자. 둘째 달의 여론 조사에서 t_1을 t_2보다 선호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x'를 구하시오. 셋째 달의 여론 조사에서 t_1을 t_2보다 선호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x''를 구하시오. 그 이후 시간이 계속 흐름에 따라 t_1을 t_2보다 선호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출제 의도

- 집단 간의 이해가 충돌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론이란 이름으로 여러 주장들이 표출하고 있음. 제시문을 통해 여론의 진정한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력과 추론적 · 통합적 사고를 평가하고자 함
- 제시문 ④는 언어적 논술을 정확히 해석하고 사회과학적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문항 해설

- 제시문 ①은 <법과 정치>의 여론과 정치 내용 중 ‘여론 정치와 언론’ 내의 지문을 활용한 것으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공동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시문 ②는 현행 교과서 내의 지문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정치>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여론의 유동성이 크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때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교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시문의 Joseph A. Schumpeter의 글은 여론 정치가 힘든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이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 있다고 판단됨

- 제시문 ③은 <윤리와 사상>의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의 일부인 '유교 윤리 사상' 단원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윤리는 곧 공동체의 윤리이며, 추구해야 할 이익은 공적인 이익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윤리가 사회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④는 <경제>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과 연관되는 지문의 내용으로 제시된 문장은 고등학교 사회, 수학 교육과정 수준이며, 서술형 수학문제를 읽고 수리 모형화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되었음
- 1번 문항에서 수험생들은 여론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여론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함
- 2번 문항의 첫 번째 상황에서 주민은 자신의 직접적인 만족도에만 근거하여 선호하는 세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하여 세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 따라서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해당 내용을 사회과학적 모형으로 바꾸고 분석해야 함